

6》 2016년에는 우리학교 위성이 달에?



8》 2014 스포츠총결산



학사다이어리-2014학년도 2학기 성적열람 및 정정기간

- 기말시험기간: 12.15(월) ~ 19(금)
- 성적입력기간: 12.15 ~ 26(금)
- 성적공시 및 정정기간: 2014.12.31.(수) ~ 2015.1.5.(월)
- ※ 성적정정이 있을 경우,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반드시 확인해야 함
- ※ 공시기간 완료 후에는 일체의 성적정정 불가

교무처, '강좌별 평균학점 B0 맞춰라'... 학생, '일방통행 구태' 반발

'성적평가협조요청' 이메일 논란

백승철 기자 scho1357@khu.ac.kr

교무처에서 교강사를 대상으로 발송한 '성적평가협조요청' 이메일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이메일에는 학점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 차원에서 '실험·실습 과목과 실기과정을 제외한 모든 강좌별 평균학점을 B0(평점 3.0) 또는 그 이하가 되도록 평가'라는 내용이 담겼다. 지

난달 5일 학장회의를 통해 결정된 '학사관리 종합대책'의 일환이다.

비록 현행 학점표준화제도에 의한 성적 입력제한(상위 40%내외 학생만 B+ 이상 학점 부여)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내용을 덧붙였지만, 특히 향후계획에 ▲대학전체 성적분포를 단과대학 평가에 반영 ▲강좌별 성적평가 결과 인사 및 재임용 자료로 활용 등의 내용도 담겨 사실상 '강좌별 평균학점 B0'를 강제하고 있다는 평가다. A강사는 '성

〈주요 7개 사립대학 졸업생〉 졸업 학점 평균 (4.5점 만점 기준)



※ 출처 : 대학알리미

적부여는 교강사의 고유한 권한"이라면서도 "하지만 재임용 여부까지 걸려있는 상태에서 강사입장에서는 가이드라인에 따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학생들도 반발하는 입장이다. 무엇보다 학생들의 성적과 관련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학장회의에서 결정한 후 교강사에게만 통보했기 때문이다. 이 문제가 학생들에게 알려진 과정 역시, 교강사를 통해 '성적평가제도를 바꾸라는 지시가 있

었다'는 이야기를 통해 알음알음 퍼졌다.

이후 지난 3일 서울캠퍼스 총학생회(총학) 준비위원회는 성적평가협조요청의 배경이 된 '우리학교 학

점표준화 현황이 최하위 수준'이라는 근거자료를 요구하고, 성적 가이드라인 통보를 철회하라는 공개질의서를 교무처에 보냈다. 총학 준비위원회 강필준(자율전공학 2013) 부회장 당선자는 "이처럼 중요한 학사과정의 변동을 한 마디의 상의도

없이 밀실에서 처리한 것은 상당히 유감스럽다"며 "정당하게 평가 받을 학생들의 권리가 뺏은 것이기 때문에 이를 되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울캠퍼스 교무처 A 직원은 "현재 우리학교의 경우 인플레이션이 심해, 대외평가 및 대학 구조개혁 등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3면으로 이어짐

총학·총여 '친 KHU' 당선 중선관위 '무효표 744표' 양산

국제캠 총학·총여 선거결과

김윤철 기자 kycxellos@khu.ac.kr
이승연 기자 leesy0177@khu.ac.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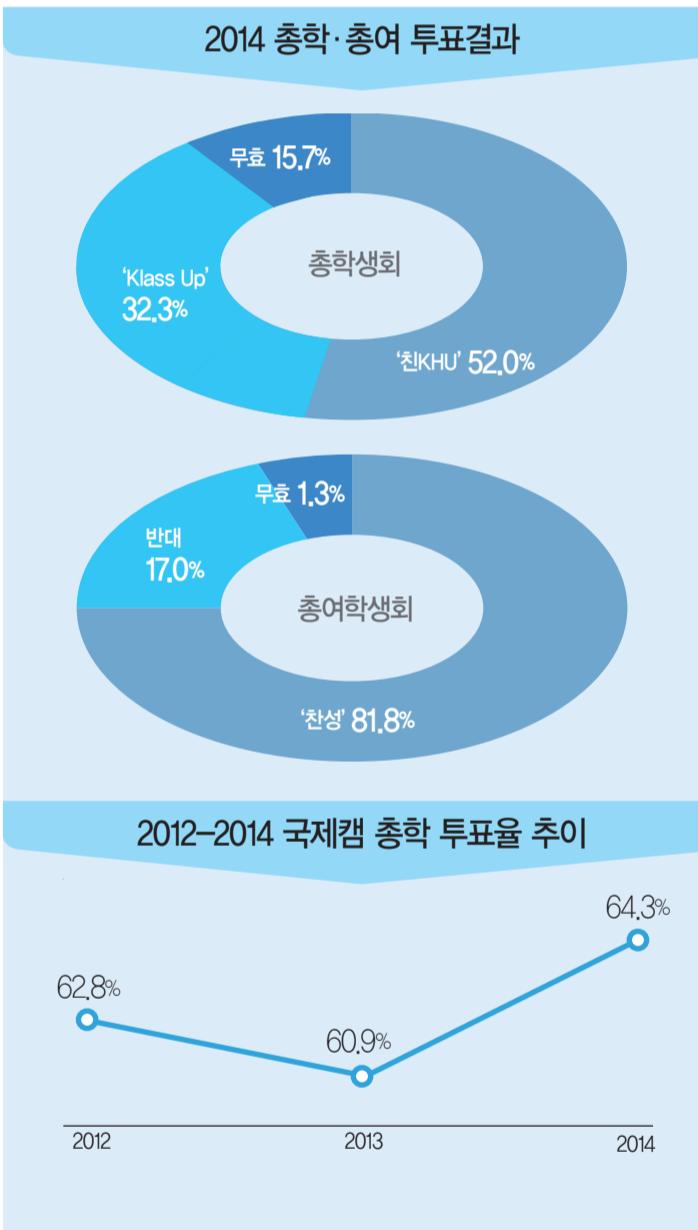
【국제】 경선으로 진행된 제47 대 총학생회(총학) 선거 개표결과 '친 KHU' 선본의 김용석(화학공학 2009) 정후보와 이서영(식품생명공학 2012) 부후보가 당선됐다.

한편 선거운동 기간 내내 계속됐던 잡음은 개표 과정에서도 드러났다. 예술·디자인대학(예디)의 총여 투표함이 제대로 테이핑이 되지 않았고, 국제경영대학(국경)과 체육대학(체대)의 총학 선거 투표함도 제대로 밀봉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체대와 예디의 투표함에 이 같은 문제가 있다는 사실은 지난 3일 오전 2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선관위) 박인(전자·전파공학 2010) 위원장이 순찰 중 발견됐다. 박 위원장은 개표 시작 전에 긴급회의를 열어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려고 했지만, 정족수 미달로 회의가 열리지 못했다. 결국 총여학생회와 총학생회의 개표는 이에 대한 논의 없이 시작됐다.

총학 선거는 전체 유권자 11,097 명 중 64.33%(5,601명)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투표 결과 '친 KHU' 52.01%(2,888명), 'Klass Up' 32.31%(1,793명), 무효 표 15.68%(870명)로 '친 KHU' 선본이 당선됐다. 이에 총학 김 당선자는 "지난 4주간 학생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관심과 성원에 감사

▶4면으로 이어짐



Newsmaker

정경대학 유학생회 부정행위 제기한 '한뼘더' 선본 이동진 (경제학 2012) 정후보



"투표중 부정행위 여러 건 발견 재투표시 사퇴하겠다"

권오은 기자 typhoon11@khu.ac.kr

#. 정경대학 학생회 선거 과정에 대해 이의제기와 신청됐다. 낙선한 '한뼘더' 선거운동본부(선본)에 의한 것이었다. 단순한 '선거불복'이었을까? 이의제기 내용에는 정경대학 학생회 선거와 함께 진행된 정경대학 유학생회 선거과정에서 중대한 부정행위가 발견됐고, 관련 CCTV증거도 확보됐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에 '한뼘더' 선본 이동진(경제학 2012) 정후보를 만나 자초지종을 들어봤다.

-선거 이후에 문제를 제기할 생각이었다고 밝혔다. 왜 선거 이후였나?
“기본적으로 당시에는 부정행위가 여러 번 벌어졌다는 사실을 몰랐다. 그저 한두 번 정도의 우발적인 실수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선거가 끝나면 이기든, 지든 ‘표차이’가 작으면 재투표를, 많으면 주의절차를 진행하면 된다”는 생각이었다. 하지만 (선거가 끝난 이후) CCTV에 잡혔던 정경대학 3층 투표소의 1시간 30분 정도의 영상을 분석해 본 결과 부정행위가 여러 건 존재함을 알게 됐다. 결국 고민 끝에 이의제기를 신청하게 됐다.”

“투표 두 번째 날 부정행위를 발견했다. 투표함에 같은 사람이 계속 표를 집어 넣는 모습이 이상해 알아보니 정경대 유학생회의 실무위원이었다. ‘유학생들이 표를 어디에 넣는지 잘 몰랐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 이후에도 다른 사람이 똑같이 계속 넣는 것을 봤는데, 심지어

이 사람은 유학생회장 후보였다.”

-왜 이 사실을 즉각 선관위에 제기하지 않았나?

“셋째 날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기표소에 후보자가 들어가는 것을 보고 당시 정경대 앞 기표소 담당 선관위원에게 문제제기를 했지만, 해당 선관위원이 침묵했다.”

-선거 이후에 문제를 제기할 생각이었다고 밝혔다. 왜 선거 이후였나?

“기본적으로 당시에는 부정행위가 여러 번 벌어졌다는 사실을 몰랐다. 그저 한두 번 정도의 우발적인 실수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선거가 끝나면 이기든, 지든 ‘표차이’가 작으면 재투표를, 많으면 주의절차를 진행하면 된다”는 생각이었다.

하지만 (선거가 끝난 이후) CCTV에 잡혔던 정경대학 3층 투표소의 1시간 30분 정도의 영상을 분석해 본 결과 부정행위가 여러 건 존재함을 알게 됐다. 결국 고민 끝에 이의제기를 신청하게 됐다.”

▶5면으로 이어짐

생각하지 않는 것, 그것이 평범한 악(惡)이다

후마니타스칼리지 - 대학주보 공동기획, 고전의 사계 ④⑥

채진원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필자는 후마니타스 칼리지에서 학생들과 함께 시민교육 수업을 하고 있다. 학생들에게 항상 던지는 질문이 있다. 여러분은 공무원이 되고 싶은가요? 여러분은 시민인가요? 어떤 사람이 시민인가요? 시민교육을 꼭 받아야 하나요? 등과 같은 것들이다. 이러한 질문을

한 후에 꼭 소개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은 바로 한나 아렌트의 『예루살렘의 아이히만: 악의 평범성에 대한 보고서』(김선욱 옮김, 한

길사 펴냄)이다.

이 책을 소개하는 이유는 우리 주변에서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는 악행(惡行)의 반복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소망 때문이기도 하다. 악행은 사이코패스와 같은 흉악한 사람들은 벌이기도 하지만, ‘근면·성실하면서도 생각이 없는 평범한 사람들’에 의해 주로 저질러진다는 점을 부각하기 위해서다.

최근의 대표적인 악행을 꼽아보자. 세월호 참사를 일으킨 ‘관료마피아’의 행태와, 조선 위안부 할머니의 인권을 유린했음에도 이것을 부인하고 사죄하지 않는 일본 아베

총리의 행태 등을 대표적인 악행으로 볼 수 있다.

관료마피아와 아베총리의 공통점은 자기 가정과 자기 나라의 국익을 앞세울 줄 아는 대체로 평범한(?) 사람들이라는 점이다. 이들처럼, 타인(타국민)의 처지와 아픔을 생각할 줄 모르고, 자기 이익만을 앞세워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어떤 끔찍한 참사와 범죄를 불러올 수 있는지를 책속의 주인공인 아돌프 아이히만이 잘 보여주고 있다.

▶7면으로 이어짐

알림

이번 호가 2014학년도 2학기 종간호입니다

대학주보는 방학중에도
온라인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media.khu.ac.kr/khunews



전문가 칼럼 연재 종료

일반노동자 필수상식 ⑤

아르바이트도 노동이다!

노동자의 권리와 일반노동자 경희대 분회
김재섭 분회장에게 들어본다.

▶7면



시선

사설

철학 없는 행정을 넘어 다시 ‘교육’으로 돌아가야

‘교육평가’의 정의에 대해 교육학자들은 다양하게 구분해 왔다. 먼저 R.W.타일러는 교육평가를 ‘목표달성을 위한 확인을 위한 것’이라 규정했다. 교육목표가 평가의 준거가 되어 교육과정과 수업을 통해 획득된 성과를 측정하는 것을 교육평가의 의의라고 간주하는 관점이다. M.S.스크리븐과 R.E.스테이크 등의 학자는 교육평가를 ‘교육과 관련된 어떤 대상의 가치를 판단하는 과정과 그 산물’이라고 정의한다. 이에 따르면 교육평가는 가치를 산정할 수 있는 명확한 평가기준을 수립한 이후, 이에 따라 대상의 가치를 판단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최근 우리학교는 여기에 또 하나의 정의를 추가했다. ‘교육평가는 학점 평균치의 원활한 조정 및 관리를 위해 B0 이하 등으로 특정하게 규정된 강좌별 평균학점을 어긋난 없이 맞춰나가는 작업’이라는 정의가 그것이다. 그러면서 학교 측은 이 새로운 정의의 마땅한 당위성을 찾기가 어려웠던지, ‘대학전체 성적분포를 단과대학 평가에 반영하고, 강좌별 성적평가 결과를 인사 및 재임용 자료로 활용한다’는 ‘위협’까지 동원했다.

여러모로 실망스러운 조치가 아닐 수 없다. 가장 먼저 우리학교의 이번 조치는 ‘평가’와 관련한 그 어떤 교육학적 의미도 무화(無化)시키고 있기에 실망스럽다. 이번 조치로 인해 우리학교의 모든 수업에서 획득된 성과는 일률적으로 평균 B0가 될 것이다. 학업성과에 이르는 학생들의 수없이 다양한 과정과 노력 역시 평균 B0라는 성적으로 환산될 것이다. 가치를 산정할 수 있는 평가기준이 어떻게 수립되든 간에, 그 평가의 결과는 결국 평균 B0라는 수치로 도출될 것이다. 이것은, 대체 무엇을 위한 결정인가?

학교 측은 ‘최하위 수준인 학점관리 현황’을 들먹이지만, 학점 인플레이션 논란은 학생들에게 일률적으로 ‘낮은 학점’을 부여해 당장 드러나는 통계적 수치만 낮추는 ‘꼼수’로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학점 인플레이션을 극복하기 위한 본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체질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선 공정한 평가기준을 수립하고 평가 시스템을 세밀하게 개선하여 적확한 학점을 부여하는 정수(正手)가 요구될 따름이다.

더불어, 학교 측이 이 꼼수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이른바 ‘갑(甲)의 논리’로 밀어붙였다는 것 역시 큰 실망을 안겨준다. 무려 ‘학장회의’라는 권력 집단에서 태동한 이번 조치가 ‘단과대학 평가’와 ‘인사 및 재임용 평가자료’라는 무수한 교강사들의 취약점을 불모삼아 강행되고 있는 모습은 ‘우리가 사는 세계’를 인문학적으로 성찰하고 ‘인간의 가치를 탐색’하자던 후마니타스 칼리지의 진정성마저 크게 의심하게 만드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번 조치는 그 내용과 진행과정 모두에서 ‘경희 교육의 가치관’과 관련한 그 어떠한 철학도, 신념도 읽히지 않는다. 오직 ‘점수를 맞추기 위한 점수’와 ‘대학’ 평가를 대비한 (성적)평가’만이 존재할 따름이다. 학교 측은 진정 이것이 경희 교육이 나아가야 할 길이라고 믿고 있는 것일까. 이번 사안은 ‘조치의 문제’를 넘어선 ‘가치의 문제’다. 때문에 이는, 비단 학생뿐만 아니라 모든 구성원이 우려를 갖고 지켜봐야 할 문제다.

호텔경영학과 최정길 교수 대한경영학회 총회서 회장으로 선출

미디어 여론동향 2014. 12. 1 ~ 12. 6

여론동향팀 khunews@khu.ac.kr

지난달 28일 열린 대한경영학회 총회에서 최정길(호텔경영학) 교수가 제27대 회장에 선출됐다.(최정길 경희대 교수, 대한경영학회 27대 회장 선임/뉴스1, 2014. 12.1) 최 교수는 미국 미시간주립대에서 호텔경영학을 전공했으며, 버지니아폴리테크닉 주립대에서 석·박사 학위과정을 마쳤다. 이후 우리학교 호텔관광대학 호텔경영학과 학과장, 국제교류위원회 위원 등을 지냈으며 현재 호텔관광대학 국제교류사업센터장, 관광산업연

만평이 있는 취재수첩

만평

여러분의 한 표는 소중합니다

임하리

이주의 주제 - 국제캠·정경대 투표과정 논란

‘신뢰 회복’이 건강한 학생사회의 기본이다.

최승욱 기자
(dotori14@khu.ac.kr)

대학 유학생회 선거에서 실무위원, 심지어 후보자가 기표소에 함께 들어가는 일이 발생했다. 비밀투표의 원칙이 훼손된 일이었지만, 정경대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관련해 짧막한 사과문과 ‘앞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가이드라인만 내놓았다.

길었던 학생회 선거가 지난 3일 매듭지어졌다. 서울캠퍼스(서울캠)의 경우 총학생회(총학) 투표율은 51.3%로 투표 인정기준인 50%를 간신히 넘었고, 국제캠퍼스(국제캠)의 경우 4년 만의 경선에 힘을 받아 전년보다 4%pt가량 상승한 64.3%의 유 헌투표율을 기록했다. 대부분의 단과대학 선거는 끝났지만, 서울캠 문과대학과 한의과대학, 국제캠 외국어대학 등은 첫 입후보기간 때 출마자가 없어, 재선거를 진행하고 있다. 아예 출마자가 없어 내년 3월까지 ‘비대위’ 체제로 움직여야 하는 곳도 존재한다.

학생사회의 낮은 투표율은 고질적인 치부다. 후보자가 없어 점점 축소되는 학생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비슷한 맥락이다. 이유에 대한 분석은 여러 가지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스펙경쟁’으로 대표되는 협 사회의 풍토 속에서 관심 가질 여력이 없다는 주장이다. 그럴듯하지만 핵심적인 이유라고 생각되지는 않는다. 다른 사회문제에서 엿볼 수 있듯이 참여나 관심이 떨어진다는 것은 결국 ‘신뢰가 낮다’는 말이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는 민주주의 절차에 가장 기본인 투표과정부터 문제가 발생했다. 서울캠 정경

구원 HATIS 기획평가&디자인 연구소 소장 등을 맡고 있다. 한편 대한경영학회는 현재 4,536명의 회원을 두 국내 최대 경영학회다.

파나소닉코리아는 지난달 28일 ‘2014 IBS 산학협력 대회’를 개최했다.(파나소닉코리아, 2014 IBS 산학협력 대상에 경희대/조세일보, 2014. 12. 1) IBS(Intervarsity Business Society)는 중앙대, 한양대, 우리학교 학생들의 연합 경영학회로 이번에 파나소닉코리아가 제시한 주제 ‘파나소닉의 20대 소비자 커뮤니케이션 전략 방안’에 대해 고민하고 발표하는 자리를 가졌다. 총 6개팀이 참가, 최우수상에 우리학교(D-DAY)팀이 수상했다. 우리학교(D-DAY) 팀은 파나소닉코리아의 똑똑한 전기면도기 램대쉬 ES-ST25에 대한 적극적인 시장 조사와 특유의 아이디어로 심사위원을 사로잡았다.

우리학교(D-DAY) 팀장 문비순(경영학 2009) 학생은 “최우수상을 수상하게 되어 감격스럽고 준비하는 시간동안 함께 해준 팀원들에게 정말 고맙다”며 “마케터로서 실무 경험을 쌓게 해 준 파나소닉코리아에게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린다”라고 전했다.

한미약품과 서울시의사회가 공동 제정한 ‘제13회 한

미참의료인상’ 수상자에 우리학교 네오플러스봉사단이 선정됐다.(한미참의료인상에 성영자/네오플러스봉사단, 경향신문, 2014. 12. 1) 한미약품과 서울시의사회는 지난 1일 시상식을 갖고 네오플러스봉사단에 상금 3,000만 원과 상패를 전달했다. 네오플러스봉사단은 강동경희대병원 교직원으로 구성된 의료봉사단체로 의학, 한의학, 치의학 등을 결합한 통합 의료봉사활동을 국내·외에서 펼치고 있다. 특히 봉사단은 열악한 의료환경에 놓인 국가 대상의 활동에서는 일방적 의료혜택 전달을 지양하고 현지 의사를 교육하는 등의 ‘자립형 봉사모델’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

한국인사행정학회가 지난 2일 제16대 회장에 강제상(행정학) 교수를 선출했다. (강제상 경희대 교수, 한국인사행정학회 16대 회장에/한국대학신문, 2014. 12. 2) 임기는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이다. 한국인사행정학회는 공공·민간 부문의 인력 관리를 연구하고 그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설립된 단체다. 강제상 교수는 뉴욕대에서 박사학위를 마치고, 2005년 2월부터 우리학교 행정학과 교수 및 학과장, 입학관리처장 등을 역임했다.

연말 ‘당신’의 반성을 권하고 싶습니다

세시봉

권오은 (편집장)



#1. 대학주보 활동을 하면서 단점을 하나 꼽으면, ‘종간’을 마치 ‘종강’처럼 느끼는 점이다. 아직 기말고사가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웨지 학기 중 마지막 신문을 만들고 나면 그 학기를 다 털어낸 느낌이다. 심지어 4학년 2학기에, 두 번째 편집장에, 쌀쌀한 날씨까지! 청승 떨기 좋은 요소를 갖춘 이번 신문제작 중 마음을 다잡기 위해 대학주보 페이스북 커버사진을 바꿨다. ‘부러질지언정 꺾이지 않겠다’

종간과 종강이 다르듯, 타협과 협력은 그 결이 다르다. 그러나 돌아볼 때마다 협력을 빙자해 현실과 타협한 것들이 눈에 밟힌다. 취재 도중에 포기한 것들, 소문은 무성하나 사실을 확인할 수 없어 보도하지 못한 것들, 믿고 이야기를 털어놨으나 책임지지 못한 것들… 한 해의 마무리를 앞둔 지금, 칼럼이 아니라 반성문을 써야 하는 것 아닐까. 하지만 혼자 반성문을 쓰기에는 속이 좁다. 같이 쓸 사람들을 뽑아봤다.

#2. 가장 먼저 ‘동대문구청’이 떠오른다. 올해 서울캠퍼스 학생들이 임대업자들의 폐쓰기에 얻은 것은 ‘생채기’에 불과했다. 결국 행정심판으로까지 떠 민 동대문구청의 결정은 그런 상처 위에 소금을 뿌리는 일 이었다. 현재 SPACE21 건설사업단과 동대문구청 간 협의조정이 이어지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지만, 그동안 느꼈던 실망을 기억하면 선불리 기대하기도 어렵다.

다음 신문에는 반성할 사람보다는 자랑할 사람으로 넘치길 바래본다

이사회도 반성문을 쓰면 좋겠다. 올해 초 ‘관선이사체제’까지 걱정하게 했던 이사회는 늘 지적받았던 투명한 이사회 운영의 ‘기초’인 회의록 공개를 두고 뜻밖을 맞았다. 10월 31일에 열렸던 이사회 회의록은 이번에도 규정과 달리 지난 12월 2일에서야 올라왔다. 그나마 평소보다 빨라진 점을 높이 평가해야 할까.(늘 내용은 길지 않는데…)

끝으로 우리학교 청소노동자와 단체협상 중인 용역업체에게도 반성을 권한다. 사실 지난해 단체협상이 올해 7월에야 비로소 맺어진 점을 감안하면, 청소노동자가 올해 임금협상을 하지 않은 기간은 3개월 정도에 불과하다. 현재도 지지부진한 과정이고, 다시 단체협상이 장기화될 가능성까지 걱정된다.(그렇다고 해도 직고용은 ‘유연화’라는 표현으로 미뤄지겠지만.)

#3. 글쓰는 이의 좁은 속을 닦아서 그런지, 이 ‘세시봉’도 비좁아 함께 반성문을 쓸 사람을 넉넉히 적을 수 없어 아쉽다. 독자 여러분 중 대학주보에 한 번쯤 (좋지 않은 일로) 이를 올렸던 경험이 있는 분이라면, 알아서 들 하시길! 대학주보는 이번 신문의 다짐처럼 꽃꽂하게 반성문 쓸 이들을 찾아다니겠지만, 그래도 다음 신문에는 반성할 사람보다는 자랑할 사람으로 넘치길 바래본다.

PS - 뜯된 편집장 탓에 고생한 모든 이의 인내에 감사하다. 남은 임기 조금 더 괴롭히고 가겠다.

알림

대학주보 페이스북 페이지에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www.facebook.com/khunews

교훈 학원의 민주화 | 사상의 민주화 | 생활의 민주화 경희대학교

대학주보

1955년 5월 12일 창간(주간)
발행·편집인 조인원 | 주간 김민진 | 편집장 권오은 | 제작·인쇄 중앙일보미디어(주인수)
구독료 1년 1만원 | 구독 02-961-0093-4 | 주소 경기 02-441-7317(인터넷기기)
인터넷 대학주보 http://media.khu.ac.kr | 이메일 khunews@khu.ac.kr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회기동) | Tel 02-961-0093-5
국제캠퍼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덕양대로 1732(서천동) | Tel 031-201-3230-2, FAX 031-204-8121

수대사, “소송까지 준비”… 산협단, “재심의 요청시 규정대로”

〈수원대를 사랑하는 사람들〉

수원대 이인수 총장 박사학위 논란

이시은 기자 dtldms77@knu.ac.kr
황경선 기자 sunny96@knu.ac.kr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에 관한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박사학위 유지결정에 대해 ‘수원대를 사랑하는 사람들(수대사)’ 측은 우리학교에 이의제기를 신청했다. 지난달 13일 우리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이 총장이 지난 1998

〈수원대 총장 논문 논란 경과〉

1998.02	수원대 이인수 총장 우리학교 행정학 박사학위 취득
2014.05	‘수원대를 사랑하는 사람들(이하 수대사)’ 측, 이인수 총장의 박사논문 표절심사 요청
2014.11	우리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박사학위를 취소하지 않기로 결정
	수대사 측, 즉각 이의제기 신청

년 우리학교 대학원에서 취득한 행정학 박사학위를 논문표절임에도 유지하기로 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된 바 있다.

당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피조사자의 박사학위논문에서 특정부분을 인용 표기 없이 서술한 것은 논문 표절에 해당한다”라며 “하지만 당시 본교에 연구윤리관리 규정이 없었고, 문제의 부분을 제외해도 논문의 구조나 결론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박사학위 취소를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수대사 측은 즉각 이의제기를 신청했다. 수대사 측은 “논문기획 단계부터 논문사례연구부분까지 모두 표절임에도 ‘특정부분’으로 인정하고 학위를 유지하게끔 하는 것은 상식 이하의 결정”이라며 “경희대 총장 명의로 정식 논문표절에 대한 공표를 하는 것이 올바른 행동이며, 학위를 즉각 취소하는 것이 경희대가 취해야 할 태도라고 본다”라고 말했다.

반면 우리학교 측은 규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심사했다는 입장이다. 산학협력단 정

종전 직원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 제22조 4항’에 따라 위원회가 존속할 수 있는 6개월간 공정하게 심사했을 뿐”이라며 “재심의에 관해서도 우리학교의 규정대로 판정결과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이고 심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수대사 측은 이의제기 과정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 경우 학위취소판정을 위한 법정소송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밖에 우리학교에서 1인 시위나 세미나 등을 진행하는 것도 검토 중인 상태다.



“서구” 빌려 인문학 허세부리기 아닌지 성찰해야”

후마 4년 평가 심포지엄

이민교 기자 mingyo@knu.ac.kr

‘후마니티스칼리지 4년 평가 심포지엄’이 ‘후마니티스가 후마니티스 4년을 말한다’는 주제로 지난 5일 청운관에서 열렸다. 이번 심포지엄은 2011년부터 시작된 후마니티스칼리지(후마) 교양교육이 올해로 4년의 과정을 거치면서 이론 성과와 한계를 살펴보고, 오는 2016년부터 시작되는 ‘후마니티스 2.0’으로의 도약을 위해 마련됐다.

이번 심포지엄은 총 4개의 발표와 교수들의 토론으로 구성 됐다. 각각의 발표주제는 이문재(후마) 교수의 ‘후마니티스 칼리지의 설립배경 및 교육목표’, 고봉준(후마) 교수의 ‘우리는 왜 대학에 있는가’, 그리고 이병태(후마) 교수의 ‘후마니티스 칼

리지, 그 지향과 현재’, 마지막으로 채효정(후마) 교수의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후마니티스인가?’로 이뤄졌다.

첫 번째 발표에서 이문재 교수는 “교양교육은 단순한 교육이 아니며 후마의 목표처럼 ‘더 나은 인간, 더 나은 세계를 위한 교육’”라며 후마의 본래 목표를 상기시켰다. 두 번째 발표를 맡은 고봉준 교수는 ‘학생을 대하는 태도와 강의 방식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강의를 수강하는 학생 수를 줄이고, 토론을 통해 수업 참여도를 높이는 것이 배움의 즐거움을 찾아주는 일”이라며 강의방식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다음으로 이병태 교수는 “후마가 추구하는 가치가 보편성이 크고 추상적”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그는 “학생들이 ‘환대’, ‘우아’와 같은 미래적·보편적 개념의 느낌을 일상에서 실재적으로 겪고, 느낄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또 그

는 “책의 컨텐츠 양이 방대하기 때문에 내용의 분산배치도 필요하다”며 “시민교육, 글쓰기, 중핵교과 간의 유기성도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채효정 교수는 최근 직접 느낀 후마 교육에 대한 회의감, 피로감을 토로했다. 그는 “마냥 서구 특히 북유럽에 호주의식의 관점을 통해 인문학을 공부한다는 허세를 부리는 것은 아닌지 성찰해야 한다”며 “그동안 후마 수업이 주목하지 못했던 ‘노동하는 삶’을 다뤄볼 필요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많은 교강사가 의견을 나눴다. 이기라(후마) 교수는 “시간이 갈수록 후마 강의가 학생들에게 얼마나 스며들고 있는지 고민이 많다. 교수가 말하는 이상과 학생들이 느끼는 현실에 괴리가 있는 것 같다”며 “현실과 후마가 지향하는 가치를 연결시켜 학생과 선생이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W&M’ 팀, 버려지는 빗물 활용 발표

학생 물 환경정책 · 기호 공모전 수상

최승욱 기자 dotori14@knu.ac.kr

환경부에서 주최한 ‘학생 물 환경 정책·기술 공모전’에서 지난 11월 20일 우리학교 ‘W&M’ 팀이 우수상(환경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W&M’ 팀은 우리학교 정기문(사회기반시스템공학 2010) 군과 최정숙(사회기반시스템공학 2009) 군으로 구성됐다.

‘W&M’ 팀은 학교 건물의 옥상에서 빗물을 모으는 ‘물탱크’와 ‘우수관로’를 구축하는 생각을 내놨다. 빗물은 하수도를 통해 처리해야 한다는 생각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W&M’ 팀은 기존의 관점과는 달리 빗물을 상수도 시스템과 연동시켜 모아진 빗물을 조경용수나 세정용수로 활용하는 계획을 세웠다. 그들의 계획은 ‘버려지는 빗물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B/

C(Benefit cost analysis, 편익비용분석) 수치는 0.35로 낮게 분석돼 투자한 비용에 비해 얻을 수 있는 효율성이 높지 않을 것이라는 평가를 듣기도 했다.

첫 공모전에 참가한 정군은 “내가 스스로 낸 아이디어를 구현하면서 마주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쾌감을 느꼈다”며 “공모전이 학부 때 배웠던 과정을 종합해 생각할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던 것 같다”라고 말했다.



상수도 시스템과 연동된 우수관로 개념도

▶ 1면에서 이어짐

이어서 A작은 “새로운 규정을 만든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었던 성적산출규정을 준수해달라는 협조요청일 뿐 협박이라는 말은 말도 안 된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또 다른 당사자인 학생에게는 공지도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한 것 아니냐라는 지적에 대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할 말이 없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영어강의에 대해서는 상대평가로 바뀌어 ‘학점표준화 제도’에 따라 다른 강의 또한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성적산출방법이 바뀔 전망이다. 교무처 학사지원과 측은 “다음 학기부터는 부분 영어강

의에 한해, 성적평가기준을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바꾸는 안이 논의중이며 사실상 확정된 상태”라고 밝혔다.

따라서 현재 영어강의는 완전 영어강의와 부분 영어강의 구분없이 모두 절대평가로 성적이 산출되고 있지만, 2015학년도 1학기부터는 완전 영어강의만 절대평가 방식을 유지한다.

부분 영어강의에 대해서는 상대평가로 바뀌어 ‘학점표준화 제도’에 따라 다른 강의와 마찬가지로 해당 과목의 전체 수강생 상위 40% 이내만 B+이상의 학점을 부여될 전망이다.

[서울] 2014학년도 동계계절학기 시간표

주관 학과	이수 구분	학수번호	강좌명	교강사명	교시	강의시간	정원	강의실	언어구분	비고
경영대	전공기초	MGMT10049	경영통계학	서상윤	2교시	13:00~15:45	65	오212		
		MGMT100349	책임경영	안성용	1교시	09:00~11:45	65	오212		
		ACCT10049	회계원리	안민희	1교시	09:00~11:45	100	오213		
		MGMT20049	경영정보시스템	진정숙	2교시	13:00~15:45	65	오211		
문화대학	전공필수	MGMT200249	마케팅원론	이용연	1교시	09:00~11:45	65	오210		
		MGMT200549	조직행동론	이병신	2교시	13:00~15:45	65	오210		
		ACCT10049	관리회계	나정현	2교시	13:00~15:45	100	오213		
		KL10049	국어기본론	호영진	2교시	13:00~15:45	60	문308		
교양대학	전공기초	HE10049	인간과 생활환경	채현원	2교시	13:00~15:45	30	생402		
		MATH1049	미적분학및연습1	김세구	2교시	13:00~17:50	35	이0502		기간강의기간 1/5~1/10
		MATH10249	미적분학및연습2	박정우	1교시	08:00~12:50	35	이0505		기간강의기간 2/2~2/12
		PHYS10249	물리학및실험1	김상훈	2교시	13:00~15:45	20	문309	팀티칭	
이과대학	전공기초	PHYS10250	물리학및실험2	김상훈	1교시	10:00~11:50	30	문301	팀티칭	
		BIOL10249	생물학및실험2	최은주	2교시	13:00~15:45	20	문301	팀티칭	
		GEOG104049	세계지역의 이해	다니카 유키아	1교시	09:00~11:45	60	이0601	부분영어	
		GEOG10149	토양학과	김현현	2교시	13:00~15:45	60	이0601	부분영어	
경정대	전공기초	ECON10049	경제학원론	김정숙	1교시	09:00~11:45	40	정304		
		ECON00349	경제보수학	유승호	1교시	09:00~11:45	40	정303		
		ECON00449	경제통계학	유종수	2교시	13:00~15:45	40	정303		
		TRADE20049	국제무역론	배경완	2교시	13:00~15:45	50	정304		
후마니티스칼리지	전공선택	PSC303449	창의학방법론	이재복	2교시	13:00~15:45	40	정302		
		GEC101549	우리가사는세계	정민진	1교시	09:00~11:45	45	정202		2014학년 수강불가 강좌
		GEC101550	우리가사는세계	정승운	2교시	13:00~15:45	45	정202		2014학년 수강불가 강좌
		GEB101549	글쓰기1	차선일	1교시	09:00~11:45	25	정302		
후마니티스칼리지	기초교과	GEB101551	글쓰기1	추선진	1교시	09:00~11:45	25	정303		
		GEB102549	글쓰기2	권경숙	2교시	13:00~15:45	25	정302		
		GEB102550	글쓰기2	호정현	1교시	09:00~11:45	25	정304		
		GEB102551	글쓰기2	정은기	2교시	13:00~15:45	25	정303		
기초교과(예술)	기초교과	GEB102551	글쓰기2	구봉근	2교시	13:00~15:45	25	정304		
		GEB102551	글쓰기2	Joseph Farao	1교시	09:00~11:45	36	정40		

보도

국제캠 단과대학 대표 선출

이승연 기자 leesy0317@khu.ac.kr

단과대학 학생회 개표가 완료됐다. 유일하게 경선으로 치러진 생명과학대학의 경우, 50% 이상의 득표율을 얻은 '친 KHU' 선거운동본부(선본)이 당선됐다. 이밖에도 '친 KHU' 선본으로 연합출마한 응용과학대학, 공과대학, 전자정보대학에서도 찬반 투표를 통해 당선에 성공했다. 체육대학, 국제대학, 예술디자인대학 역시 단선으로 선거를 진행해 대표자를 선출했다. 단일 후보로 출마한 동아리연합회는 'Klass Up' 선본이 당선됐다. 최초 후보등록 기간 동안 후보자가 나오지 않은 외국어대학은 8일부터 9일까지 2일간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당선자 명단

공과대학

투표율 60.26% 득표율 88.21%
정 : 김상준(기계공학 2010)
부 : 정명준(화학공학 2010)

국제대학

투표율 70.5% 득표율 89.6%
정 : 고상현(국제학 2013)
부 : 이정혁(국제학 2013)

동아리연합회

투표율 60.8% 득표율 83.03%
정 : 유매연(환경학 및 환경공학 2013)

생명과학대학

투표율 67.52% 득표율 56.93%
정 : 예상진(식품생명공학 2010)
부 : 김대일(식품생명공학 2013)

예술디자인대학

투표율 57.99% 득표율 85.7%
정 : 전치화(연극영화학 2010)
부 : 박시내(의류디자인학 2013)

응용과학대학

투표율 74.38% 득표율 94.56%
정 : 고아라(응용수학 2012)
부 : 김형준(응용수학 2010)

전자정보대학

투표율 67.91% 득표율 91.1%
정 : 손 권(생체의공학 2010)
부 : 윤영상(전자·전파공학 2011)

체육대학

투표율 58.8% 득표율 91.7%
정 : 김병경(체육학 2009)
부 : 이승훈(스포츠지도학 2010)

▶ 1면에서 이어짐

이후 개표를 진행하던 중 국경 투표함 역시 제대로 밀봉되지 않았다는 것이 뒤늦게 발견됐다.

총여 개표에서는 이에 대한 사항을 선본과 논의 끝에 개봉하기로 결정했다. 중선관위 남슬기(스페인어학 2013) 위원은 "예디의 투표함을 확인했을 때 오차율도 1% 미만으로 크지 않아, 선본과 합의해 개표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총학 선거개표에서는 밀봉되지 않은 투표함이 결국 '무효처리' 됐다. 개표 초반 중선관위 측은 투표함 문제를 마지막에 양 선본간의 논의를 통해 해결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멀티미디어교육관, 국제대학, 생명과학대학, 예술디자인대학, 전자정보대학 2투표소의 투표함이 개표된 후 'Klass Up' 선본에서는 "다른 투표소들의 개표가 이뤄진 다음에 문제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다면, 결과에 승복하지 않는 것처럼 비춰질 수도 있다"며 국제경영대학, 체육대학의 투표함을 우선 처리할 것을 제안했다.

중선관위는 이 같은 제안을 받아들였고, 양 선본과 논의한 결과 밀봉되지 않았던



결국 6시 30분 경 양 선본이 모두 퇴장해 중선관위가 선본의 참관 없이 단독으로 남은 투표함을 개표하기로 결정했다

국경과 체대의 투표함을 '무효처리'하기로 했다. 다만 체대는 투표함의 문제가 발견된 후 교체한 투표함에 들어있던 7표는 유효표로 인정했다. 중선관위의 부주의로 인해 체대와 국경 투표함의 '744 표'가 순식간에 '휴지 조각'으로 변해버린 것이다.

투표함 '무효처리'를 결정한 직후 'Klass Up' 선본은 개표소에서 퇴장했다. 'Klass Up' 선본 총학 장동석(국제학

2006) 정후보는 "개표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던 미흡한 선거 운영에 강력하게 문제제기하기 위해 퇴장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친 KHU' 선본 유문열(기계공학 2008) 선본장은 "한 선본만 남아 개표에 참관하는 것은 공정성에 어긋난다"며 "양 선본이 같이 개표를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면, '친 KHU' 선본도 퇴장하겠다"라고 말했다. 결국 오전 6시 30분 경 양

선본은 모두 퇴장해 개표장소에는 중선관위 위원들만 남았다.

중선관위는 논의 결과 선본의 참관 없이 단독으로 남은 투표함을 개표하기로 결정했다. 선본 없이 '전자정보대학 1투표소'와 '외국어대학 투표소'를 개표한 끝에 오전 7시 5분이 돼서야 마무리됐다. 이후 오전 9시 중선관위는 별다른 설명없이 '당선 공고'만 온라인으로 게재했다.

한기연 결국 제명… 회칙논란부터 고소까지 7개월

한기연 논란

이재은 기자 jenny95@khu.ac.kr
방누리 기자 nurib423@khu.ac.kr

【서울】 지난 4일 총동아리연합회(총동연)은 운영위원회(운영위)를 통해 한국기독청년학생연합회(한기연)를 결국 제명했다. 지난 4월부터 '동아리회원 명부조작여부'로 논란이 불거진 지 약 7개월 만의 결론이다.

지난달 20일 총동연은 운영위를 통해 이미 한 차례 한기연 제명을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 운영위에서 총동연이 별도로 녹취를 하지 않아 회의록이 남아있지 않은 상황이었고, 이에 대해 한기연 측이 회의 결과의 정당성에 대해 문제제기를 해 지난 4일 재차 운영위가 열린 것이다.

학생 자치 위원회에 학생 아닌

한기연 간사 참석… 발언권 박탈

이 자리에는 총동연 홍준영(호텔경영학 2010) 회장을 비롯해 부회장, 5명의 분과장, 한기연 간사 등 총 8명이 참석했다. 과

반수의 참석으로 회의는 시작됐으나, 학생자치 위원회인 총동연 운영위에 한기연 측 대표로 학생이 아닌 한기연 간사가 참석한 것을 들려싸고 발언권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홍 회장은 한기연 간사의 발언권과 관련한 찬반투표를 진행했고, 참석자 과반수의 반대로 한기연 간사의 발언권은 저지됐다.

한편 한기연 간사는 발언권이 박탈된 상태에서 한기연 측의 입장을 밝혔다. 그는 "학생이 안 온 이유는 무고하게 고소당한 학생이 너무나 충격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호소하며 "학생을 보호하고 싶었다"고 참석 이유를 밝힌 후, "사전에 경고 공지도 없이 제명 여부가 운영위를 통해 확정된 것은 문제가 있다"며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홍 회장은 "일반적으로 특정 동아리에 경고를 부과할 때 따로 공지하지 않고 다만 기록으로 남겨둔다"며 "때문에 경고조치는 별도로 공지가 되지 않았더라도 사전에 이뤄진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기연이 속한 종교분과의 분과장은 "총동연의 회칙에는 제명에 있어서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며, "그

런데 이번에는 어떤 돌려의 방안 없이 바로 제명을 언급하여 학생 자치기구 회칙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았나 싶다"고 밝힌했다. 이에 대해 홍 회장은 "제명된다고 해서 한기연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며, 중앙동아리로서의 지원이 없어질 뿐 한기연을 해체시키는 것이 아니라고 대응했다.

한기연, '명의도용은 무혐의'

총동연, '소급되면 유죄'

격론이 이어졌고, 이후 식순대로 한기연 제명 재투표가 강행됐다. 그 결과 총 7표 중 찬성 6표, 반대 1표로 한기연 제명 투표가 가결됐다. 그러나 이 결정에 대해 한기연 간사는 경찰서의 판결문을 증거로 제시하며 명의도용이 무혐의임을 재차 강조했다. 반면 총동연 측에서는 "그것은 개정된 회칙이 소급 적용되지 않았기에 그런 것"이라며 "경찰이 무혐의의 판정한 2014년 1학기의 사건 이후, 개정회칙이 적용되기 시작한 2014년 2학기 이후에도 한기연이 명의도용 및 명단 허위작성을 하다가 적발된 만큼 이번 제명조치는 합당하다"라고 반박했다.

양측 명의도용 및 회칙위반여부를 놓고 공방

총동연

회원 명부를 조직한 동아리를 징계하는 것은 총동연이 할 일. 실제로 한기연이 명의를 도용한 증거가 포착돼 제명을 논의한 것

한기연

명의를 도용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며 한기연과 이야기 해서 해결해야 함 회원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돌려 체크하는 것은 부당함.

한 학생이 "한기연이 동의 없이 회원 명단에 올려 연락" 한다며 경찰 고발 입장 밝힘.

대표자회의에서 개인이 아닌 총동연이 고발해야 한다고 결정.

총동연 회장, 경찰에 명부문제 관련 진정서 제출 (5/15)

경찰, "내사결과 혐의 입증 불가" 무혐의 처리 (9/14)

[국제] 2014학년도 동계계절학기 시간표

대학	이수구분	학수번호	강사명	강사명	교시	시간	정원	장소	영어강	비고	
동아리연합회	전공기초	AMTH1001-01	미분방정식	전현기 : 김경수 후번기 : 배세영	교시 0900~1145	57	전221	2014/12/22~2015/01/02			
		AMTH1001-02	미분방정식	전현기 : 강 곤 후번기 : 김민희	교시 0900~1145	57	전223	2014/12/22~2015/01/02			
		AMTH1002-01	미분적분학1	전현기 : 홍법현 후번기 : 최현경	교시 0900~1145	46	전191	2015/01/05~2015/01/14			
		AMTH1002-02	미분적분학1	전현기 : 안중경 후번기 : 김경수	교시 1300~1545	46	전191	2015/01/05~2015/01/14			
		AMTH1003-01	미분적분학2	전현기 : 박민관 후번기 : 박민관	교시 0900~1145	46	전192	2015/01/05~2015/01/14			
		AMTH1003-02	미분적분학2	전현기 : 박민관 후번기 : 박민관	교시 0900~1145	46	전193	2015/01/05~2015/01/14			
		AMTH1003-03	미분적분학2	전현기 : 박민관 후번기 : 박민관	교시 1300~1545	46	전194	2015/01/05~2015/01/14			
		AMTH1004-01	선형수학	전현기 : 홍준영 후번기 : 남궁윤경	교시 0900~1145	44	전197	2015/01/05~2015/01/14			
		APHY1001-01	물리학1	이수정 후번기 : 김경수	교시 0900~1145	30	월407	2015/01/05~2015/01/14			
		APHY1003-01	물리학입상학원(1回)	김경수 후번기 : 김경수	교시 1100~1250	30	월405	2015/01/05~2015/01/14			
APHY1003-02	물리학입상학원(2회)	김경수 후번기 : 박정숙	교시 1100~1250	30	월405	2015/01/05~2015/01/14					
APHY1003-03	물리학입상학원(3회)	김경수 후번기 : 김경수	교시 1100~1250	30	월407	2015/01/05~2015/01/14					
APHY1003-04	물리학입상학원(4회)	김경수 후번기 : 김경수	교시 1100~1250	30	월407	2015/01/05~2015/01/14					
APHY1003-05	물리학입상학원(5회)	김경수 후번기 : 김경수	교시 1100~1250	30	월407	2015/01/05~2015/01/14					
APCH1004-01	신형수학	전현기 : 홍준영 후번기 : 남궁윤경	교시 0900~1145	44	전198	2015/01/05~2015/01/14					
생과대학	전공기초	BIO103-01	일반생물	김병경 후번기 : 김병경	교시 0900~1145	50	생50	2014/12/22~2015/01/02			
		ME205-01	공학프로그래밍언론	이승진 후번기 : 이승진	교시 1300~1545	40	월203				
		NE206-01	공학수학2	박민관 후번기 : 박민관	교시 0900~1145	40	월207				
		CSE02-001	프로그래밍1	이승현 후번기 : 이승현	교시 0900~1145	40	월207				
		CSE02-001	고급프로그래밍과 프로그램	한영구 후번기 : 한영구	교시 1300~1545	40	전199				
		CSE320-001	컴퓨터구조	김영만 후번기 : 김영만	교시 1300~1545	40	전106	부전공(SCS)트랙에 이수자면			



우리학교의 굵직한 사안들로 ① 개방이사 선임 문제 ② 등록금 3.7% 인상안 논란 ③ 주민의 공공기숙사 신축 반대 ④ 세월호 참사 추모집회 ⑤ 대학 평가 ⑥ 총여학생회를 둘러싼 존폐논란 등이 꼽혔다

'총여 존폐'에서 '암초 만난 기숙사'까지

'2014년 우리학교 핫 이슈'

이민교 기자 mingyo@khu.ac.kr

#2014년, 갑오년도 어느덧 막을 내리고 있다. 한 해 동안 우리학교는 다양한 일을 겪었다. 우리신문은 이번 학기 종간호를 맞아 구성원의 많은 관심을 모았던 주요 기사를 정리해보았다.

다사다난했던 가운데, 올 한 해에는 '리더십'과 관련된 이슈들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먼저 지난 3월 초에는 법인이사회에서 일반이사 후보 2인의 이사 선임절차가 무산되면서 '관선이사' 논란이 벌어졌다. 이와 관련해 대학주보 제1561호에 게재된 '개교 이후 초유의 관선이사 우려' 제하의 기사는 온라인 조회수 1,712회를, 그리고 연이어 제1562호에 게재된 '2명 이상 이사 선임돼야 이사회 안정·윤석인 이사 후보, 교육부 "심의단계"' 제하의 기사는 온라인 조회수 1,044회를 기록하며 구성원들의 큰 관심을 반영했다.

지난 9월에는 총여의 존폐논란이 대두되기도 했다. 대자보를 통해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제기한 양성평등연대 김동근(포스트모던음악학 2008) 대표와 국제캠 총여 남슬기(스페인어학 2012) 회장의 인터뷰 토론 기사(대학주보 제1576호 "총여 존속, 합리적 근거 없다")는 온라인 조

<온라인 기사 조회수 상위 10개 게시물>

기사명	조회수
총여학생회 존폐논란	6,541
CPA합격자 총 45명, 전년대비 8명 들어	2,633
중앙일보 대학평가 종합 9위, 한계단 올랐다?	1,744
대학특성화사업 2개 사업단 선정, 연간 17억원 지원	1,742
개교이후 초유의 '관선이사' 우려	1,712
축소된 사업규모로 첫발 내딛는 국제캠 SPACE21	1,677
지리학과 김종구 교수, 투병 끝에 별세	1,532
우리학교 취업률 '악화' 50.6%... 평가대학 중 24위	1,508
신·편입생 등록금 납부차액 환불	1,496
대운동장 공공기숙사 뜻밖에 암초만나, 임대업자 "공실보상" 요구	1,390

회수만 무려 6,541회를 모으며 캠퍼스 전체의 이목을 끌었다. 해당 기사에서 김 대표는 '총여와 생리공결제 폐지'를 주장했고, 이에 맞서 남 회장은 "총여는 여성만을 위한 곳이 아니다", "생리공결제는 '복지'의 차원" 등의 반박 주장을 펼치며 또 거운 논쟁을 벌였다.

한편 올해에는 대학평가 결과와 대학의 내실이라는 두 가치를 두고 다양한 문제 제기가 이뤄지기도 했다. 올해 우리학교는 '2014 중앙일보 대학평가' 9위, '라이덴 랭킹' 9위라는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이

는 전년 대비 각각 한 계단, 세 계단 상승한 순위였지만, '순위' 뒤에 가려진 세부 지표는 도리어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교육여건 및 재정' 부문이 가장 크게 떨어졌는데, 이러한 실상을 담아 학생들이 느끼는 실질적인 교육여건을 전한 대학주보 제1563호의 '100명 이상 대형강의, 서울캠은 2013 대비 19배 증가' 기사와 제1565호 '해외파견 교비 '0' 원 외국 어대 타격 심해' 기사, 제1577호의 '화상 강의의 울상, "필기내용 안 보여요"' 기사는 각각 온라인 조회수 1,328회, 1,347회, 293회를 기록하며 구성원들의 호응을 이끌어냈다.

양 캠퍼스 SPACE21사업의 진척상황 역시 많은 구성원의 관심을 모았다.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표류하고 있는 서울캠 공공기숙사 문제를 다룬 제1564호의 '대운동장 공공 기숙사 뜻밖에 암초 만나-임대업자 "공실보상" 요구' 기사와 온라인판 '기숙사 주민공청회 진행, 대안 없이 고성만 난무' 기사가 인기를 모았고, 국제캠 신공학관 디자인 문제를 둘러싼 논란을 다룬 기사들 역시 지속적으로 높은 조회수를 기록했다.

매년 바라는 것이라지만, 내년에는 올해 있었던 리더십의 문제라든지 재정적 문제, 교육환경 개선 문제, SPACE21 문제 등 산적한 여러 문제점들이 극복되는 한 해가 될 수 있길 바란다.

▶1면에서 이어짐

이동진 정후보가 발견한 문제는 ▲기표소에 유학생회 실무위원이 유권자와 함께 입소 ▲기표소에 후보자가 유권자와 함께 입소 ▲후보자가 선거인 명부를 열람 ▲투표함에 유권자 대신 투표용지를 넣을 등이다. CCTV에 남아있는 1시간 30분 분량의 자료에서만 무려 17건의 부정행위가 벌어졌다. 이후 기자가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6시 10분까지 추가로 확인한 결과 기표소에 선관위원이 함께 들어가는 경우가 6건 더 확인됐다. 경경대학 3층 출입구 투표소가 선거 3일째에만 설치됐고, 청운관과 경경대학 학생회실(꿀방)의 투표소는 CCTV로 확인할 수 없었다. 결국 하나의 투표소에서, 하루 동안 발생한 문제가 적지 않아 전반적인 선거신뢰도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힘을 얻는다.

경경대학 유학생회 측에 확인한 결과, '후보자와 선관위원 등이 유권자와 기표소에 함께 들어간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나 유학생회 측은 이에 대해 "유학생 중 저학년 유권자의 경우 '한글도 제대로 읽지 못하는 수준'일 정도고, 경경대학의 경우 전자투표와 종이투표를 병행했기 때문에 어려워하는 학생이 다수였던 만큼 이들에게 투표 방법을 알려주기 위한 목적"이라고 해명했다. 유학생회 A 관계자는 "실무위원이 아닌 후보자가 기표소에 함께 들어간 것은 큰 실수이고, 문제가 돼 다른 학생회 선거에 피해를 주게 돼 미안하다"면서도 "아직 선거

절차가 익숙하지 않은 유학생회의 책임도 분명하지만, 학교한테도 책임이 있다. 한국 말 수준이 너무 낮아서, 한글도 못 알아볼 정도인 유학생이 존재하는 상황이 답답하다"고 말했다.

후보자가 기표행위를 지켜보는 것은 선거의 기본도 지키지 못한 것이다. 결국 이동진 정후보는 "재투표를 하더라도 한뼘더 선본은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사퇴하겠다고 밝힌 것은 '선거불복'으로 비추어지지 않기 위해서인가?

"그렇다. 이것이 진심을 전하는 방법이라 생각했다. 이번 경경대학 선거과정의 부정행위는 최근 불거진 고려대 총학생회 선거부정보다 더 심각하다고 생각한다. 부정이 이렇게 많은 상황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더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그러나 경경대학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의 제기 신청에 대해 지난 2일 8명의 선관위원이 참석, 무기명 투표를 한 결과 4대 4로 기각했다. 이후 선거관리위원회는 해산했고, 사과문과 함께 향후 경경대학 유학생회 선거시행세칙의 가이드라인에 ▲선거 교육 ▲기표소 2인 이상 입장 불가 ▲다국어 안내문 제작 등을 제시하는 것으로 마무리했다. 선관위 측은 "우리도 잘못이 있는데 반박하거나,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이동진 정후보는 향후 계획에 대해 "아직 정해져있지 않다"고 답했다. 선거가 끝난 자리는 눈이 왔다가 녹았고, 바람만 훨하게 불고 있다.

'2015 대입 정시전형 대비 학부모 진학설명회'

한파 탓에 두꺼운 옷을 걸친 학부모들이 지난 4일 평화의 전당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서울교육연구정보원이 주최한 '2015 대입 정시전형 대비 학부모 진학설명회'를 찾는 인파였다.

지난 3일 수능성적표가 배부되기 전부터 올해 수능이 '불수능' 논란에 훨씬 일찍 불거진다는 평가가 대다수였다. 더불어 대입전형 간소화 방침에 따라 입학정원 200명 미만 학과에 대한 분할모집이 급증되면서, 전년보다 지원기회가 감소하고 대학별 모집군이 연쇄 이동한 것도 학부모의 고민을 높인 원인이다.

이날 설명회장은 찾은 학부모 A씨는 "불안한 마음에 설명회를 찾았다. 지원하고 싶은 대학보다 갈 수 있는 대학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 같아 답답하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19일부터 시작될 정시전형에서 우리학교는 '가'군에서 951명, '나'군에서 995명의 신입생을 모집한다. 정원외로는 312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재학생을 위한 경희대학교병원 장례식장 감면 혜택

▣ 경희 재학생이 장례식장 이용 시 감면 혜택

• 경희의료원 장례식장 (동대문구 회기동)

- 재학생 본인상 50% 감면

- 재학생 직계상 40% 감면

- 홈페이지 : www.kmcf.co.kr

문의 : 02-958-9721 (24시간 상담 가능)

▪ 강동경희대학교병원 장례식장 (강동구 상일동)

- 재학생 본인상 30% 감면

- 재학생 직계상 20% 감면

- 홈페이지 : funeral.khnmc.or.kr

문의 : 02-440-8800 (24시간 상담 가능)

※ 공통적으로 감면범위는 안치료,

빈소사용료에 한함. (상조회사 이용 시는 제외)

▪ 학교법인 경희학원(경희대학교) 직영 장례식장

• 쾌적하고 편안한 장례 환경

• 임종에서 벌인까지 현대적인 원스톱

장례의전서비스 제공

• 품질 좋고 저렴한 가격

• 친절하고 촌지 없는 투명한 장례식장 운영

경희의료원 장례식장

[서울C] 2015-1학기 교내장학금 신청 안내

2015-1학기 우편정장을 수혜받으려면 '국가장학 1차' 신청을 원료하여야 합니다.

국가장학 1차 신청기간: 2014.11.20.(목)~12.8(화) 18시 교내장학 신청기

간: 2014.12.1.(월)~12.31(수)

1. 신청기간 및 대상

-신청기간: 2014. 12. 1(월) ~ 12. 31(수) [한달간]

- 신청대상: 정규대학 학생 재학생 전체

* 1. 기초 교내학점/보통/보조학점/교외학점/교시 등

· 교외 계속학점은 반드시 교내장학금 신청

2. 장학금정에 의거, 장학금은 신청자에 한하여 지급하며, 급여에 장학금을 신청할 수 없음.

3. 경상·신설자: 2015-1학기 미리록시 선발이 취소됨

2. 신청방법

구 분

종합정보시스템 → 인터넷신청 → [교내/온라인신청] → 「교내장학금」 신청

2015-1학기 우수상장학, 우수장학, 밝은사회장학 등 특별목적을 제외한 모든 장학

신청기간: 2014. 12. 1(월) ~ 12. 31(수) [한달간]

※ 신청기간 내에 신청자는 제출하지 않음. 3. 기재관련 증빙서류 제출 생략 ≈ 4. 우정장학 수혜

희망 학생은 국가장학(자 신)을 반드시 필해야 함. 4. 장학신청서 소속 단과대학에서 별도 서

류 제출 요청할 수 있음.

- 지급방법: 등록금 고지서에 학비감면

- 등록방법: 등록기간 내에 지정된 금융기관에서 반드시 등록을 필해야 함.

* 고지서 날짜면이 '0'원인 경우 장학생도 반드시 지정된 금융기관에서 등록 절차(은행수납

인)를 필해야 함.

1. 2015-1학기부터 우정장학금은 장학팀에서 지급함. 2. 장학생 선발기준(우수·모범·밝은사

회장학)에 관계없이 신청자는 학생 소속 단과대학(전공) 활동실적 등의 3. 교내·외 각종 장학금

은 원칙적으로 이중 수혜 불가(이중수수시 할인 조치, 단 등록금 범위 내의 국가장학금은 이

중 수혜 인정). 4. 전자상장학, 모범장학금을 수혜할 수 없음. 우정장학금은 수혜 가능). 2015-1학기 우정장학금은 우정장학금에 허락할 경우 계속장학금과 함께 제3자에게 장학금을 수령할 수 없음. 경우에는 2015-1학기 등록을 하지 않고 허락 우정장학금(이동필수증) 6. 위 기간 내의 장학금 미신청자는 2015-1학기 장학금 신청 대상에서 제외됨.

서울캠퍼스 학생지원처

외국어강좌

LEAP Program

가. 접수 기간: 2014. 12. 8(월) ~ 2015. 1. 20(화)

나. 강의 기간: 2015. 1. 26(월) ~ 2015. 2. 17(화)

다. 프로그램 일정

LEVEL TEST 2015. 1. 21(수) 17:00

입교식 2015. 1. 26(월)

Game Day 2015. 2. 6(금) / 2015. 2. 13(금)

보강 2015. 2. 6(금) ~ 2015. 2. 13(금)

칼럼

'달-지구 우주탐사'



문용재
우주과학과 교수

지난 2013년 9월, 교육부는 BK21 플러스 글로벌 인재양성 유형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우리학교에서는 문용재(우주과학) 교수 연구팀의 '달-지구 우주탐사' 사업이 선정됐으며 매년 9억 2000만 원씩 7년간 지원 받는다. 이에 문 교수를 만나 '달-지구 우주탐사'의 구체적인 사업 내용과 목표를 들어보자 한다.

소형 위성으로 달 탐사를 수행한다

우주탐사학과의 BK21 플러스 '달-지구 우주탐사' 사업단(연구책임자: 문용재 교수)은 지난 2013년 9월 이후부터 오는 2020년 8월까지 매년 약 9억 원, 총 약 60억 원의 연구비 지원을 받고 있다. 세계 최초로 초소형 위성을 이용한 달 탐사를 수행하고 관련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는 이 사업단에는 우주탐사학과 교수진 13명(해외학자 5명), 연구박사와 계약교수 8명(외국인 5명), 석·박사급 대학원생 52명(214년 11월 기준)이 참여하고 있다.

지난 반세기 동안 최초의 인공위성, 인류의 우주유영 및 달 착륙, 각 행성 탐사위성 및 우주왕복선 발사, 우주정거장 건설 등으로 진행되어 온 우주개발은 최근 달 탐사 분야에서 새로운 전환기를 맞고 있다. 40년 전 미국과 구소련의 각축으로 시작된 달 탐사는 80년대 이후로 20여 년간 소강상태에 있었으나 지난 10년간 유럽연합, 일본, 중국, 인도 등과 더불어 다시 미국이 달에 탐사선들을 보내기 시작하면서 경쟁이 가속화되었다. 이제 아시아에서도 우주경쟁시대가 도래한 지금, 우리나라에는 현재 약 20여기의 위성들을 개발하면서 우주개발 경쟁에 합류하고 있다.

국내 달 탐사계획에 크게 기여할 달-지구 우주탐사 사업단

정부가 발표한 제1, 2차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과 우주개발 세부 실천 로드맵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듯 달 탐사는 한국우주개발에서 가시적으로 설정하고 있는 지향 목표이다. 특히 2014년 들어 정부에서 수정 발표한 우주개발계획에 따르면, 한국형 발사체와 달 탐사 위성개발 일정은 기존 2025년에서 2020년으로 5년이 단축되어 논의되고 있다. 사실상 달 탐사는 현재 시점에서 국가 우주개발 계획에 의거한 시의성이 담보되어 있는 연구주제인 셈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우리학교 사업단의 '초소형 위성을 이용한 국제 공동 선행 달 탐사 연구'는 이전까지 저궤도 위성 수준에 국한되었던 국내 우주기술을 향후 본격적인 달 탐사에 필요한 통신, 향법, 추진체 분야까지 확장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심우주(deep space) 개발기술로까지 확대될 수 있는 귀중한 기술경험과 인력양성의 기회를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학교 사업단은 지난 5년간 WCU(세



계수준의 연구 중심대학) 달궤도우주탐사 사업(2008~2013년)을 통하여 향후 달 탐사에 필요한 초소형 위성 및 과학 탐지체 기술개발을 목표로 연구해온 바 있다. 이 당시 개발된 3kg급 초소형 위성은 여타의 동급 초소형 위성들과 달리 최초로 자세제어가 가능한 다중 위성이며 기존 중대형 첨단 과학위성들의 탐지체 성능을 훨씬 넘어서는 새로운 초경량 입자측정기와 지자기측정기를 구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 위성은 지구 저궤도 시험 운행을 위하여 지난 2012년 9월에 1기가 미국에서 성공적으로 발사되었다. 발사 이후로도 연구는 계속되어, 지난 2013년 11월 우주탐사학과에서 자체 개발한 CINEMA 위성 2, 3호기가 발사 성공한 데 이어 오는 2015년에는 KHUSAT-03(SIGMA) 초소형 위성 1기가 우주로 발사될 예정이다.

이번 '달-지구 우주탐사 사업단'의 목표는 현재까지의 성과를 넘어 세계 최초로 초소형 위성을 달에 보내고 새로운 과학기술 영역을 구축하는 데 있다. 사업단에서는 이에 대해 "우주과학기술 역사에 새로이 기록될 만한 중요성을 지닌다"고 자평한다. 우리나라가 비록 우주 분야에서는 아직 전반적으로 최고 수준의 기술 확보에 부족한 형

편이지만, 초소형 위성이라는 새로운 영역에서는 글로벌리더의 수준에 빠르게 다가갈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는 만큼 이를 실현해보이겠다는 의지다.

초소형 위성 속에

달을 향한 큰 꿈을 품다

기존 WCU사업인 달궤도우주탐사사업을 이어 받은 이번 '달-지구 우주탐사 사업'에서는 우리학교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초소형 위성을 오는 2016~7년경에 달에 보내고자 한다. 초소형 위성 2기가 성공적으로 발사되며 되면 이 위성은 달까지 가는 도중에 우주환경 연구를 수행하게 되고, 달에서는 달 표면의 자기장 이상 지역을 사상 최초로 직접 조사하여 그 구조 및 원인을 규명하게 될 것이다.

본 사업단의 초소형 위성인 'TRIO-CINEMA(Triplet Ionospheric Observatory - Cubesat for Ion, Neutral, Electron, and Magnetic fields)'는 개발 초기부터 미국 등 우주기술 해외 선진 국가들에서도 많은 관심을 보였다. 초소형 위성을 이용한 달 탐사의 방법론적 중요성을 강화한 여러 해외

연구기관들이 우리학교 사업단과의 공동연구를 먼저 제안해오기도 했으며, 현재 우리학교 사업단은 본격적인 국제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이에 위성본체 및 전자 부분은 우리학교 사업단에서 제작하게 되며, 탐지체는 우리학교 사업단과 미국 UC버클리 대학 연구팀, 영국 임페리얼 칼리지의 연구팀이 공동 제작할 예정이다. 아울러 과학 임무는 미국 UC산타크루즈 대학 연구팀과, 위성발사 및 달 표면까지의 운행은 미 항공우주국(NASA)의 에임스 리서치 센터와, 통신은 미국 제트추진 연구소(JPL)와, 그리고 추진체(propulsion)는 미국 MIT 대학 등과 협력관계를 구축해 공동연구를 수행할 전망이다. 이번 사업에서 추진하는 달 탐사는 과학기술적 측면에서 획기적인 의미와 결과가 기대되며, 한국 우주개발에서 국제 공동연구의 모범적인 사례로 남게 될 것이다.

이번 BK21 플러스 달-지구 우주탐사 사업단의 비전은 '달-지구 우주탐사 글로벌 선도 연구'다. 특히 앞당겨진 달탐사 일정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의 현황을 고려할 때 본 사업단 연구는 한국형 달탐사 계획을 대비하고 글로벌 수준의 우주탐사 전문 인력을 배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다.



수 있다.

문제를 발견했다고 해서 해법이 즉시 제시되는 것은 아니다. 사소해 보이는 문제도 몸을 움직여 탐구하다 보면, 갑자기 몰처럼 여러 제도와 법과 문화와 풍속과 결합된 '모순의 복합체'라는 것을 비로소 인식하게 된다. 하지만 문제의 발견 단계에서 대체로 학생들은 낙천적인 면모를 보인다.

그런데 정작 현장활동을 시작하면 '안'과 '밖' 모두에 난제가 쌓이고 있다는 점을

알게 된다. 모둠별 현장활동은 '경쟁교육'이 아닌 '협력교육'이다. 이것은 조원들 간의 책임의 배분과 소통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타자는 사회라는 교실의 '외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은 모둠 안의 '내부'에도 있는 것이다. 그래서 소통을 둘러싼 미묘한 갈등과 타협의 기술을 모둠활동에서 연마하지 않는다면, 학기말에는 서로를 향해서 '프리 라이더'라고 비난하는 비극도 종종

발생한다.

현장에서 그들이 접하게 되는 것은 더 큰 장벽들이다. 조사연구를 위해 전화를 건 모든 기관의 담당자들은 '전화 돌리기'로 학생들을 골탕 먹인다. 담당자는 누구지? 학생들은 알쏭달쏭하다. 활동 대상과의 친밀성이나 신뢰형성에도 어려움을 겪는다. 지속적인 현장활동에 기반해 대상과의 친밀감과 신뢰감이 형성되어야 '고급정보'를 확보할 수 있다. 그런데 현장활동이 형식적이거나 일회적일 때, 학생들이 제시한 현장의 실태나 구조, 그 밖의 잡다한 정보는 상투적인 보도기사 수준에 머무를 확률이 높다.

대안이나 비전의 제시에 있어서도 '비교 대상'을 설정해야 효과적이 될 수 있다. 학생들이 탐구하고 활동했던 의제들에 대한 대안은 법, 제도, 문화의 층위에서 다양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고, 지역적 차원에서의 비교를 필요로 하는 것도 있으며, 국가간 또는 글로벌 수준에서 상호 검토를 요구하는 것도 있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이 간과하는 것 중 하나는 활동한 결과를 강의실의 청중들에게 유려하면서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능력이다. 강의실 안에도 시민 있다.

교양리포트⑭
[시민교육]

현장활동 안과 밖 시민이 있다



이명원
후마니티스칼리지 교수

시민교육은 청년들의 삶에 대한 고민을 공유하고 현 사회의 이슈, 공정과 정의, 민주시민과 사회 참여, 공동체 삶과 나눔 문화, 세계시민에 대한 이해와 다양한 활동사례를 살펴본 후에 현장활동을 경험함으로써 이론습득뿐 아니라, 시민적 삶에 대한 동기부여의 기회를 갖도록 한다.

스포츠



① 축구부는 U리그 왕중왕전에서 3위를 차지했다



② 농구부는 2014 농구대잔치에서 준우승을 거뒀다



③ 야구부는 협회장기 대학야구대회에서 준우승을 차지했다

① 축구부는 U리그 왕중왕전에서 3위를 차지했다 ② 농구부는 2014 농구대잔치에서 준우승을 거뒀다 ③ 야구부는 협회장기 대학야구대회에서 준우승을 차지했다

'2014 농구대잔치', 상무 만나 아쉬운 준우승

이진우 기자 urusa93@khu.ac.kr



우리학교 농구부가 지난 5일 김천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신한은행 2014 농구대잔치' 결승전에서 상무(국군체육부대)를 만나 71-91로 패해 아쉽게 준우승했다.

우리학교 농구부는 지난 11월 27일부터 시작된 '신한은행 2014 농구대잔치'에서 연세대, 동국대, 상명대를 꺾고 A조 1위로 예선을 통과했다. 지난 4일엔 B조 2위로 예선을 통과한 고려대를 준결승전에서 78-66으로 꺾었다. 이날 '빅맨' 김철욱(스포츠지도학 2012) 선수는 높이를 앞세워 22득점 11리바운드 2블록슛으로 *'더블더블'을 기록하는 만점 활약을 선보였다. 가드진의 활약도 돋보였다. 성건주(스포츠지도학 2012) 선수는 18득점 7리바운드 3어시스트를 기록했고, 최정진(스포츠지도학 2012) 선수도 14득점 3리바운드 3어시스트를 올려 팀 승리의 원동력이 됐다.

5일 열린 결승전에선 연세대를 꺾고 올라온 상무와 맞붙었다. 1쿼터는 22-18로 상무에 4점차로 앞서나갔다. 한희원(스포츠지도학 2011)은 3점슛과 속공으로 경기 초반 팀의 분위기를 끌어올렸다. 또한 성건주, 김철욱 선수가 잇달아 활약하며 퀴터를 마쳤다.

2쿼터는 김철욱과 한희원이 특유의 활동량을 선보이며 득점을 올렸고, 최정진 선수도 날카로운 드리블로 상무의 수비를 공략했다. 그러나 2쿼터부터는 상무의 공격력이 살아나며 36-40으로 전반전을 끝냈다.

3쿼터 초반에 우리학교는 조직적인 움직임을 보이며 43-43으로 동점까지 추격해 역전의 발판을 마련했다. 하지만 승부는 3쿼터 중반에 갈렸다. 우리학교는 3쿼터 중반 수비 집중력을 잃으며 상대에게 연속 득점을 허용했고 58-67의 스코어로 4쿼터를 맞았다. 4쿼터 초반, 팀의 골밀을 책임지던 김철욱 선수가 5반칙 퇴장까지 당하는 최악의 상황을 맞았다. 한희원과 최정진이 외곽을 공략하며 추격의 불씨를 살렸지만 승부를 뒤집기엔 역부족이었고, 결국 71-91로 패배하며 준우승으로 농구대잔치를 마무리했다.

*더블더블 : 농구 경기에서 득점, 리바운드, 어시스트, 블록슛, 가로채기 5개 부문 중 2개 부문에서 두 자릿수 이상을 기록하는 것.

다양한 종목에서 강한 '사자군단' 돌보여

2014 경희 스포츠 총정리

김윤철 기자 kycxellos@khu.ac.kr

2014년 우리학교 체육부는 다양한 종목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특히 핸드볼부는 '2014 핸드볼코리아 전국대학선수권 대회' 1차 대회 때는 원광대에 패해 준우승에 그쳤지만, 2차 대회 때는 우승을 거두며 그 명성을 날렸다. 농구부는 30년 동안 우리학교를 이끌었던 최부영 감독이 은퇴하며 성적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지만, '2014 KB 대학농구리그'에서 정규리그 3위, '2014 신한은행 농구대잔치'에서 준우승을 기록하며 여전히 강력한 '사자군단'의 모습을 보여줬다.

또한 축구부도 '2014 카페베네 U리그'에서 조별리그 2위, 왕중왕전에서 3위를 차지하며 U리그에서 강한 모습을 선보였다. 태권도부는 각종 대회를 훌륭히 명실상부한 '태권도 최강자'임을 입증했다. 야구부도 '제 69회 전국대학야구선수권대회'에서 3위를 기록하고 '2014 협회장기 대학야구대회 겸 전국체육대회 선발전'에서 준우승을 거두며 강한 모습을 보여줬다.

구기종목뿐만 아니라 양궁과 태권도부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였다. '제 41회 전국대학 태권도 개인선수권 대회'에서 여자개인종합우승, 남자5인단체 우승을 포함해 3개 부문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우승을 차지하며 U리그에서 강한 모습을 선보였다. 태권도부는 각종 대회를 훌륭히 명실상부한 '태권도 최강자'임을 입증했다. 야구부도 '제 69회 전국대학야구선수권대회'에서 3위를 기록하고 '2014 협회장기 대학야구대회 겸 전국체육대회 선발전'에서 준우승을 거두며 강한 모습을 보여줬다.

구기종목뿐만 아니라 양궁과 태권도부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였다. '제 41회 전국대학 태권도 개인선수권 대회'에서 여자개인종합우승, 남자5인단체 우승, '제 49회 대통령기 전국단체대항태권도대회'에서 남녀 종합우승을 차지하며 우승을 차지하며 U리그에서 강한 모습을 선보였다. 태권도부는 각종 대회를 훌륭히 명실상부한 '태권도 최강자'임을 입증했다. 야구부도 '제 69회 전국대학야구선수권대회'에서 3위를 기록하고 '2014 협회장기 대학야구대회 겸 전국체육대회 선발전'에서 준우승을 거두며 강한 모습을 보여줬다.

구기종목뿐만 아니라 양궁과 태권도부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였다. '제 41회 전국대학 태권도 개인선수권 대회'에서 여자개인종합우승, 남자5인단체 우승, '제 49회 대통령기 전국단체대항태권도대회'에서 남녀 종합우승을 차지하며 우승을 차지하며 U리그에서 강한 모습을 선보였다. 태권도부는 각종 대회를 훌륭히 명실상부한 '태권도 최강자'임을 입증했다. 야구부도 '제 69회 전국대학야구선수권대회'에서 3위를 기록하고 '2014 협회장기 대학야구대회 겸 전국체육대회 선발전'에서 준우승을 거두며 강한 모습을 보여줬다.

(2014 경희스포츠 주요 종목 경기결과)

	대회명	대회기간	대회 결과
축구	2014 카페베네 U리그	4.11 ~ 10.10	조2위(7승4무3패)
	2014 카페베네 U리그 왕중왕전	11.6 ~ 11.21	3위
농구	2014 KB국민은행 대학농구리그	3.24 ~ 6.19	정규리그 3위
	2014 아시아·페시피 대학농구 챌린지	7.4 ~ 7.10	4위
	2014 KB 국민은행 대학농구리그 플레이오프	8.25 ~ 9.7	4강
	2014 신한은행 농구대잔치	11.27 ~ 12.5	준우승
야구	2014년도 회장기 전국대학야구춘계리그전	4.1 ~ 4.15	3위
	제69회 전국대학야구선수권대회	5.6 ~ 5.16	3위
	2014 협회장기 대학야구대회 겸 전국체육대회 선발전	5.19 ~ 5.22	준우승
	2014 회장기 전국대학야구하계리그전	6.13 ~ 6.27	4강
핸드볼	2014 핸드볼코리아 전국대학선수권대회	3.21 ~ 3.26	준우승
	2014 핸드볼코리아전국대학선수권대회 2차대회	8.23 ~ 8.31	우승
배드민턴	2014 전국봄철대학배드민턴리그전	3.21 ~ 3.28	4강
	57회 전국여름체육배드민턴선수권대회	4.29 ~ 5.7	8강
	이용대 올림픽제때기념 2014 회순 전국학교배드민턴선수권대회	7.22 ~ 7.30	단체 3위
태권도	제41회 전국대학 태권도 개인선수권 대회	5.14 ~ 5.21	여자개인종합우승, 남자5인단체 우승
	제44회 협회장기 전국단체대항태권도대회 겸 국가대표선수선발예선대회	6.14 ~ 6.17	남여 종합준우승, 1위 5명
	2014 경주코리아오픈국제태권도대회	7.10 ~ 7.16	1위 3명
	제49회 대통령기 전국단체대항태권도대회	8.16 ~ 8.19	남자 종합우승, 여자 종합우승
	제23회 국방부장관기 전국단체대항태권도대회 겸 2015년도 국가대표선발예선대회	8.19 ~ 8.23	여자 종합우승, 남자 종합3위
양궁	2014 국가대표 5차 선발전	3.19 ~ 3.26	전훈영(스포츠지도학 2013) 국가대표 선발
	제31회 회장기 전국대학·실업양궁대회	6.21 ~ 6.26	전훈영 2위, 박성호 2위
	제17회 한국대학양궁선수권대회	7.8 ~ 7.11	남자단체 1위, 여자단체 3위
	제32회 대통령기 전국남녀 양궁대회	7.16 ~ 7.21	남자단체 1위, 여자단체 3위
	2015년 국가대표 1차 선발전	8.27 ~ 9.2	여자단체전 준우승, 전훈영 1위

2014학년도 동계 계절학기 개설 안내 (서울·국제)

1. 계절학기 주요 일정		
구 분	일 시	비 고
개설과목 확인	2014. 11. 17(월)	경희대학교 홈페이지 '학사안내'
학번부여(학점교류생)	2014. 12. 03(수)	SMS 안내 문자 발송※ 학점교류생에 한함
수강신청기간	2014. 12. 1(목) 10:30 ~ 12. 15(월) 17:00	본교 홈페이지 오른쪽 하단의 '개설학기 시간표 및 수강신청' 링크 클릭
폐강공고	2014. 12. 15(월) 12:00 (화) ~ 2014. 12. 19(금) 09:00 (화)	경희대학교 홈페이지 '학사안내'
등록금 납부기간	2014. 12. 16(화) ~ 12. 18(목) 16:30	한나은행 가상계좌로 납부
수강정정기간 (폐강과목 수강생)	2014. 12. 15(월) ~ 12. 17(수) 17:30	후미나티스킬리지 행정부 방문※ 폐강과목 수강자에 한함
수업기간	2014. 12. 22(월) ~ 2015. 01. 14(수)	
상기임명일	2015. 01. 16(금) 부터	

2. 개설기간 및 수업안내

가. 개설기간 : 2014. 12. 22(월) ~ 2015. 01. 14(수) [16일간]

나. 수업시간

구 분	학점	교시	시간대	구 分	학점	교시	시간대
서울캠퍸스	1학점 (실기)	1교시	10:00~11:50	1학점/ 3학점	온라인강좌	온라인강좌	
	2교시	13:00~14:50					
2학점	1교시	10:00~11:50		1교시	09:00~11:45	2교시	13:00~15:45
	2교시	13:00~14:50					
3학점	1교시	09:00~11:45					
	2교시	13:00~15:45					

다. 개설교과 수업 시간 조회 : 2014. 11. 17(월) 경희대학교 홈페이지 '학사안내' 게시판에 공지

라. 강의계획서 조회 : 2014. 11. 28(금) 17:00 까지

나. 학번부여 : 2014. 12. 03(수) SMS 개별 문자 발송

4. 수강신청

가. 수강신청 기간 : 2014. 12. 11(목) 10:30 ~ 12. 15(월) 17:00

나. 수강 가능 학점 : 최대 6학점

* 학점교류, 국제교류처를 통한 어학연수, 단과대학 현장 연수활동 또는 Global Collaborative (구 Penn-KHU) 프로그램과

개설학기 동시 수강 가능

* 단 수강 가능 학점(6학점)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며, 수업시간이 중복될 경우에는 해당 강좌 수강 불가

다. 폐강 공고

1) 1차 : 2014. 12. 15(월) 12:00 (화)